◈'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교회학교의 여름 계절학교 한창

금주와 다음주에 대부분 실시

여름 계절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월 6일 새가정부, 사랑부, 영어교육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94년도 여름 계절학교가 각급학교의 방학이 있는 금주와 다음주에 걸쳐 대부분의 교회학교가 실시하게 된다.

교회학교는 매년 겨울과 여름에 실시하는 계절학교를 통해 특별 영적훈련의 기회와 공동체생활, 서로 간의 친교, 개인적인 영적체험 등을 통해 교회학교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다.

대학부는 이미 7월 4-8일 까지 여름수련회를 끝냈다. 금주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2·3·4·5부와 중등 1·2부, 청년1·2부, 에바다(학생)부가 계절학교를 열게 된다.

영아부는 7월 20, 21일 교회당에서, 유치부, 초등 1·2·3·4부는 7월 20-22일까지 교회당에서, 초등 5부는 7월18-20일까지 교회당에서 열리게 되는데 방학하자마자 시작되는 성경학교로 각부마다 교사 40-50명, 학생 200-250명 정도의 출석을 예상하고 있다. 교육관과 기타 교회당을 사용하기에 공간 활용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각 부서는 각 학년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력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다.

중등 2부는 7월 18-20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이어서 중등 1부는 7월 20-22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지며 신앙훈련을 하게 된다. 에바다 학생부는 6회째 맞는 여름성경학교로 7월 21-23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개최한다.

다음 초등 6부가 7월 25-27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고등부가 7월 27-29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리고 중등 3부가 8월 3-5일, 장년1부가 8월 12-13일, 장년 3부가 8월 15-16일, 소망부가 8월 18-19일 여름 계절학교를 실시하므로 교회학교의 모든 계절학교가 다 마치게 된다.

교회학교로서는 1년중 가장 큰 행사인 계절학교이고 교회적으로도 거의 모든 가정이 해당되는 행사이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하고 영적 진보가 있는 계절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청년 1부 여름 수련회
행동하는 젊은 예수꾼
7월 20-25일 공항벧엘교회수양관

청년1부 여름수련회가 7월20- 23일까지 충남 몽산포에 있는 공항 벧엘교회 수양관에서 열리게 된다. '행동하는 젊은 예수꾼' 이란 주제하에 김양흡, 현상민 목사를 주강사로 열리게 되는 청년1부 수련회는 예전과는 다른 색다른 기획으로 교회내의 20대 젊은이들을 모두 수용하자는 의지가 가득차 있다.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안목을 갖고 보다 폭넓고 균형잡힌 신앙인을 목표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점검하게 될 이번 수련회에 교회 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청년 2부 여름 수련회
'치료 하시는 하나님'
권성수 목사 , 7월 18-19일 오후 6시,

청년2부의 여름 수련회가 7월 18, 19일 오후 6시부터 갈릴리홀에서 개최된다. 청년 2부의 특성상 숙식을 하면서 할 수가 없기에 매년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름수련회는 금년에는 '치료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하에 청년 2부 지도 권성수목사가 전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된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순수한 말씀잔치로 치뤄질 금년수련회는 권성수목사의 4차례에 걸친 연속강의가 있게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한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각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충현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

- 기간 : 1994. 6. 26 - 7. 31
- 접수 : 사무국(지원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94 예수사랑큰잔치

'그리스도의 편지' - 효과적인 활용법

예수사랑 큰잔치, 그 세번째의 나팔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금년에 세번째 실시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는 더 효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첫번째와 두번째의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작년 제 2회 때 실시했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을 태신자 명단 작성

이번 초청은 타교인을 당일만 참석케 하는 등 숫자 채우기식의 초청을 지양하고, 양육을 전제한 초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나 접촉점 편지를 통해 접근하여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도하며 확정한다.

2. 매일 기도 시간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성령님의 감동없이 단순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가 어렵다.

3. 그리스도의 편지의 관리 및 배포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의 봉사분과에서 관리 및 배포하게 된다. 봉사분과에서는 본당 로비에 12종의 씨앗편지(불신자용)를 세트와 낱개로 각각 준비하였다. 1신부터 보낼 사람은 세트로 포장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중간에 보낼 사람은 낱개 중 필요한 것을 골라서 발송하면 된다.

4. 편지작성하여 우표를 각 개인이 붙인후 교회에 가지고 온다

성도들은 자신의 태신자들에게 보낼 그리스도의 편지를 작성하여(주소, 성명, 간단한 안부와 권면 등을 기록) 우표를 부착, 주일날까지 교구별로 제출한다. 교구에서는 교구내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를 수집하여 찬양예배시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 후에 다음 월요일 봉사분과에서 발송한다.

5. 7월 10일 이후에 작성된 태신자에게

7월 10일 이후에 작성된 태신자에게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12신의 편지 중 적당한 것을 골라 보내며, 초청편지(13신과 14신)는 함께 보낼 수 있게 조절한다. 이 때는 필히 발송카드를 작성하여 중복이나 빠짐이 없도록 체크한다.

6. 7월 10일 일제히 발송 시작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9월 25일에 제 12신을 보내게 된다.

12신을 모두 받은 수신자에게 10월 2일 제 13신에 해당하는 초청편지를 발송한다. 10월 9일 초청을 확인하며 제 14신에 해당하는 초청편지를 다시 한번 발송하고, 10월 16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초청을 권면한다.

7. 그리스도의 편지의 종류

불신자용 씨앗편지 종류

· 유치부용(6신) · 유년부용(6신) · 초등부용(6신) · 중등부용(7신) · 고등부용(7신) · 대학부용(10신) · 청년부용(12신) · 장년부용(12신) · 주부용(12신) · 소망부용(12신)

그 외에 장기결석자용으로 유치부와 유년부용으로 각 4신씩 새순편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장년부를 위해서는 낙심자용(12신)과 환우용(6신)이 있다.

▲ 그리스도의 편지 주부용 제4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다리자. 처음도 기도이고 마지막도 기도이다. 편지를 쓰기 전에 기도하고, 쓰면서 기도하고, 보내면서 기도하고, 보낸 후에 기도하자.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내가 보낸 편지, 한 영혼 구한다

충현강단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마 28:16-20)

신 성 종
<목사 · 당회장>

본문 16절에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빠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만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2000년 전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경배까지 하면서도 마음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보아도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의 범위는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1. 예수님의 권세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땅의 권세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케도 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케도 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BC)과 주후(AD)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은 역사(history)란 바로 그의 이야기(his's story)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역사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명령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때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지상(至上)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땅위(地上)에서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상의, 최고의(Great commission)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1)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 즉 이 명령을 받는 이 분부의 대상은 예수님의 열 한 제자는 물론이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한 백이십 문도는 물론이고, 나중에 회개한 삼천명, 오천명도 물론이고, 그후로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가서"라는 말은 국경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다른 문화권으로 개세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는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까지 개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라는 말은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꾸 성장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선교하여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자꾸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두 가지 면에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재구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선교지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 즉 배운다는 말입니다. 평생 배운다,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평생 학생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든 족속을 평생학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 인종, 계층, 남녀노소 할 것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교회의 성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교인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세례를 받아야지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신앙을 교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나타내줍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 같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진리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고 하는 말인 '디다스코'는 훈련시킨다는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말하자면 군인들에게처럼 지식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숙련되게 철저히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테레오'인데 이 말은 '감시한다, 공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배울 것을 때로는 사탄마귀가 빼어갈 수도, 훔쳐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교훈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고, 자기의 시대를 지키라는 아주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수님의 약속

20절 후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권세만 가지고 분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보증수표보다도 더 중요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라고 하셨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도 할줄 모르는데 미국에 가라, 중국말도 할줄 모르는데 중국에 가라고 하셨지만 선교비가 있었겠습니까, 비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얘기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얘기요, 물질을 주신다는 얘기요,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만 가지실 분이 아닙니다. 땅의 권세까지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노 프라블럼(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에', '모든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즉 번영과 기쁨의 날에도, 고난의 때에도, 믿음의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전파의 사명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아울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핑계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번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천국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도 그들에 듣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망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피값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의 유황불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를 마치고 ●

오늘의 농어촌과 미래의 농어촌 그리고 농어촌 교회

김 광 국
(목사, 교육훈련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제7교구)

작년 가을 수많은 농민들이 울어야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풍년들어 좋아하여야할 농민들이 배추를 뽑아 내어 내동이치고 울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농부들, 그 배추마저 보시싫어 배추밭을 등지고 고개숙여 우는 농부의 아내들, 작년 가을 배추 1억 8천만 포기(65만톤)가 그대로 버려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와서 UR과 개방화로 인하여 농민들은 어디에 마음을 부쳐야 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농촌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교회는 지난 6월 28일 부터 7월 1일까지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를 열어 개방을 맞는 농어촌교회의 목회자로써 농어촌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현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며 농어촌교회의 목회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마치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며 가졌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농어촌과 농어촌교회에 대한 공감의 폭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과거를 살펴보면 1937년에 교회내부에서는 일제와 연결되어 농촌선교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일과 교회 성회사업을 혼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농촌부 폐지와 곧이어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습니다. 1937년에 일제의 악랄함을 들어내고 조선의 농민들을 수탈해 갈때에 교회는 오히려 농촌전도사업을 중단하고 폐지시켰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사에 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농어촌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을 한국교회가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면 한국교회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같이 나누고 생각하며 교백적인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1. 한국 농어촌의 현실

오늘날 농촌에 내려가 보면 젊은이를 찾아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몇 분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노인들은 아무런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명절때나 오는 자녀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농어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곳은 많은 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농촌인구가 1,460만명에서 670만명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58.3%에서 26%로 감소 되었으며 앞으로 선진국형 농촌을 만든다는 계획에 따르면 훨씬 더 줄어 들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땅이 죽어가고 있으며 바다가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양은 각종 살균제, 제초제로 흠뻑 적셔 놓아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물은 농약이 섞어져 흘려 내려가 결국은 우리도 그 물을 먹게 됩니다. 이 물은 또한 강으로 바다로 흘려 가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든 벼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다른 악영향을 또한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네 벼농사의 논은 6,7,8월 장마철 댐 역할을 하며 벼는 공기 중에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우리는 제대로 숨쉴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농촌을 지키겠다는 젊은 영농후계자들이 있지만 이들도 추석때나 설 명절때에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손수 몰고 금의환향하듯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풀이 죽어 시무룩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몇가정은 농촌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민방위 대원이 한사람도 없는 마을로 변하고 맙니다.

농어촌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2. 농어촌교회의 실태

도시교회의 부흥의 모체는 농촌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찾아 도시로 나아가므로 도시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어촌의 교회에는 성도가 많지 못합니다. 교회에 젊은이가 없고 그게 나이 많은 몇 사람만이 교회에 교인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목회자는 장례를 치루는 일이 많고 노환으로 아프신 노인을 돌봐 드리는 일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서, 이 어려운 실정을 보다 못한 일부 농어촌목회자는 영농기술을 배워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공사례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어린이가 많은 교회는 어린이의 찬송소리가 울려퍼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 목회자나 사모가 가르치고 이 어린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면이나 도회지로 개척 나가게 됩니다. 이럴때마다 농어촌 목회자의 의욕감은 상실되고 맙니다.

이것을 아는 도시교회는 농어촌을 도와드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농어촌교회를 도와준다면서 떠벌리는 것과 농산물, 수산물을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싸게 사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에 농어촌교회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농어촌 교회는 탄식이 있고 절규가 있는 곳입니다.

3. 농어촌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

기독교인은 세상과는 구별하려는 의식 속에 죄와 선을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있는 이 땅보다는 장차 가야할 천국을 더 열망하는 경향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이 이 자연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있는 한 이 땅은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가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 하였느니라(눅 12:27)"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신비를 잊어버린채 문명을 발달시킨다는 미명아래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의 관심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음의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신학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과 도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자연 속에 농어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풀 한포기도 소중한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4. 앞으로 다가올 농어촌의 희망

오늘의 농어촌은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 각종 가전제품과 보일러, 가스렌지 등 도시생활과 별차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도로는 거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농어민들 가운데는 수익성이 있는 영농기술로 삶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우기 가장 좋은 조건은 도시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었지만 아직도 청량한 물과 공기, 시야에 들어오는 녹색식물들 이 모두는 농어촌에서만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농어촌 역시 컴퓨터와 자동기계로 농어촌이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기 힘든 농어촌이 아니라 편리와 실용적으로 일하는 농어촌이 됩니다. UR로 인하여 많은 농어촌이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UR타격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어촌은 아직도 원시적인 농업을 그냥 좋아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정한 봉급을 받는 도시근로자 보다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PC산업의 발달로 도시와 농촌의 거리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조건을 따라서 다시 농어촌으로 내려갈 때가 옵니다.

한국 농어촌 교회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농어촌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메시지와 교회교육을 향상 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의 삶의 터전을 잡으려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시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높아져 있기에 목회자가 영성이 있고 영적이고 선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라면 어디든지 마다않고 찾아갑니다. 농어촌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자기준비를 믿음으로 준비 잘 한다면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수 있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충현교회가 주최한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중 성공사례를 발표한 사례 중에는 전혀 교회가 없는 동네에서 목회자가 농촌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공헌하여 오히려 동네사람들이 교회를 짓는데 앞장서고 거의 모든 동네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이것이 곧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닥아올 농어촌과 농어촌의 교회가 희망적입니다. 도움받는 농어촌이 아니라 도시인들에 신선을 지는 농어촌으로 변화되고 성경에 살력있고 경건한 성도를 배출하는 농어촌교회로 변화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 선교연구원에서

총 14명으로 지원팀 구성, 7월 25일-8월 2일까지

충현선교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 서만수 선교사)에 가서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충현선교연구원에서 운영, 인도한 여름성경학교가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7월 27일-29일 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해 총책임에 하대선 장로, 지도에 장봉생 목사를 위시하여 12명의 대원을 파송하여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예배, 분반공부, 기타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유아반, 유년반,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5개반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되며 교사훈련, 공과 교재준비, 교육활동 진행, 시상품을 등 모든 준비 일체를 지원팀이 준비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25일 출국하여 8월 2일 귀국할 지원팀은 이의 준비를 위해 매주일 저녁찬양예배, 수요2부 예배 후에는 베다니홀에서 금요찬양기도회후에는 충현기도원에서 모여 땀을 흘리며 교과준비, 찬양 율동 연습, 기도회 들을 통해 팀웍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의 좋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해외 선교지의 여름 수련회를 계속 지원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94 찬양대 연합여름수련회

8월 15일-17일, 충주 수안보 한알유스호스텔에서

우리 교회의 전찬양대와 연주대가 함께하는 여름수양회가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 충주수안보 한알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10개 찬양대 및 연주대가 다 참석하는 이번 수련회의 참석예상 인원은 약 600여명.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영성을 회복함으로 찬양대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찬양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일들을 바로 감당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모이는 연합수련회는 기간 중 저녁 부흥회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개·폐회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찬양위원회 지도인 현상민 목사가 특강은 내, 외부강사가 담당하게 됐는데 특히 김철륜교수(연세대 음대)가 특강강사로 내정되었다.

찬양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 찬양대가 참가하는 조직을 완료하고 각분야별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전 찬양대원이 함께하는 수련회는 처음으로 이런 연합수련회를 통해 찬양대원들이 주님께 대해 바른 마음을 갖고 더욱 영감있는 찬양이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함께 기도합시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 : 27일(금) 성석교회 목사위임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 23일(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북방선교의 연합대책세미나 주제 발표
     24일(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선교회 총회 축도, 오산리기도원 주최 제12회 전국 교역자초청 교회성장세미나 특강
2. 충현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이 되게 하시며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의 인물로 성장하게 하소서.
3. 대통령 내외 분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며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4. 북한의 핵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며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5.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 물맷돌

출생과 자라남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가 1년, 2년, 5년이 가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귀여운 어린아이라 할찌라도 부모님께 이 처럼 큰 짐이 없을 것이다.

태어난 자녀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부모의 의논상대가 될때 부모는 부모된 기쁨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꼭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후 5:17), 하나님의 자녀(요 1:12)가 된다.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서(벧전 2:2)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며(히 5:4), 그의 신앙은 더욱 자라나 하나님의 일꾼(롬 15:6)으로 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런 성장을 아버지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생명이 없어서일 것이다.

● 살며 생각하며 ●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최 영 옥
(집사, 초등1부 교사)

어릴적 시골에서 자랐기에 늘 대하는 자연에 식상했다고 하던 친구가 오랜 직장·결혼생활을 한 후 요즈음은 한포기의 풀이 그렇게 그립더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어느날 식구들과 늦가을에 누렇게 마른 잔디 위에 한가로이 누워 본적이 있었다.

늦가을 엷은 햇살이 포근했다. 흙의 부드러움과 잔디의 부드러움이 아늑한 품 속처럼 너무나 편하고 행복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는 자연 속에서 마냥 뛰놀며 행복해 하다가 생활이란 굴레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연에 무심해지고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 찌들때 비로소 한 포기의 풀을 생각하고 그리워 한다.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상 최고의 위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다. 그저 푸근함으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자연은 참으로 말을 지니고 있음을 안다. 마음이 상할때 산 앞에 물 앞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말없는 말로서 위로를 받는다.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자기 이익에 늘 어두워져 있지만 자연은 늘 그 모습 그대로의 계절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나타낼 뿐이다. 계절이 바뀔때 마다 자연은 온갖 생각의 씨앗들을 풍성히 주며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먼저 자연을 창조하셨다. 아마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위로받으며 살라고 이렇게 풍성한 자연을 먼저 지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만 당장 눈에 보이는 위로를 찾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라도 볼수 있는 그윽한 자연을 주셔서 하늘의 끝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을, 넓은 바다을 보고 끝없는 위로를, 산을 보고 부드럽고 굳센 심성으로 살 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길을 걷다가 보라빛 제비꽃이 바람결에 한들거리고 있음을 볼때, 노란 민들레가 푸른 잔디에 동그랗게 반짝일때, 긴 겨울을 지나고 양지바른 흙더미에 납작한 풀이 어느새 소담히 피어 있음을 볼때 마음은 늘 설레인다.

과일을 대할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기해 하시는 친정어머니를 생각한다. 딸기에 까만 씨가 오목하게 박힌 모양, 여름 수박의 그 달고 시원함, 짙푸른 녹음 같은 은 멋진 껍질의 무늬, 어떻게 포도는 동그란 알이 터지지 않고 꼭 붙어 열렸는지…… 어린애 같이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 나도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유별난 것 같다. 하나도 똑같지 않은 색깔과 모양으로 핀 꽃 들을 볼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재미 있으신 예술가이심을 느낀다.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 아름답고 신기한 자연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향유하며 누릴 축복이 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자연에 우리의 자녀들을 자주 접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없는 교훈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라도록 늘 힘써야 겠다. 또 그런 믿음과 안목을 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